

세계 통합전자대장경 길뒀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이 한장의 CD-ROM으로 다시 탄생, 지난 19일 이를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리는 등 세계불교사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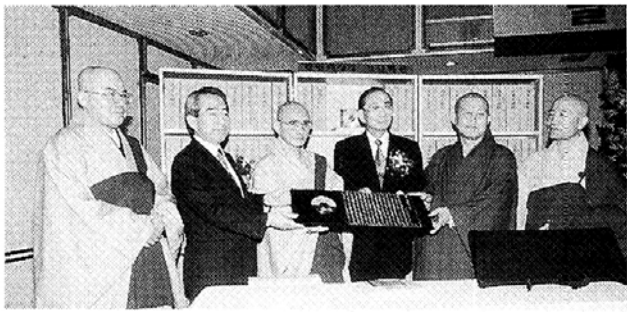
이번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그동안 난제로 꼽혀왔던 '한문 입력'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세계 최초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외형적 성과 외에도 세계 무대에서의 불교 대중화를 통한 불교학 및 불교사상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를 찾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불전 전산화를 선보이고 있는 나라는 태국, 티베트, 일본, 중국, 인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성한 팔리, 티베트장경들은 종종 상충심인데다 경의 규모가 작고, 알파벳으로 처리돼 있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국은 팔리어 대장경을 CD 경주 고속철 건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건전노선이 경주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대표 김지하·약칭 생명민회)'이 주최한 포럼에서 김지하씨는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노선 결정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생명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親環境)적인 문화중

팔만대장경 CD롬 제작... 각국 대장경전산화 현황과 전망



◇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전산화기념 리셉션에서 삼성문화재단은 월주스님에게 팔만대장경 CD롬을 전달했다.

불전 대중화·불교사상 발전 기대 커 美·日·泰·유럽등선 소규모 수준 진행

에 답아 판매중이 있으나 프로그램이 보편화 돼 있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 즉 자

국민만이 볼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티베트 대장경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 고속철 건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건전노선이 경주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는 수준. 일본의 대장경 등 불전전산화 역시 팔만대장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규모다.

이외에도 스리랑카, 대만, 미국, 유럽 등지에서 불전전산화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전산화작업은 세계의 모든 불교학 연구자들에게 방대한 불교경전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불교학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타 학문과의 능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불교사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중환 논설위원은 "개발과 보존의 경계를 찾아내는 일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르는 법"이라며 "모든 면에서 '문화가 재화'라는 인식을 정부가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주고속철 건전노선이 최적

생명민회포럼서 주장 '문화가 재화'... 개발과 보존 경계 찾아야

발표를 통해 "고속철 노선은 충분한 배후 개발지역 확보와 역사경관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전혀 없는 곳으로 경주 구도심과는 전혀 다른 현대도시의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고 이야기하며 유적과 문화경관의 보존이 가능

한 건전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교수는 또 상당부분의 문화유적과 역사경관을 파괴시키고, 환경피해가 클 것인 점을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시계획노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신문 기자는 "고속철 노선은 충분한 배후 개발지역 확보와 역사경관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전혀 없는 곳으로 경주 구도심과는 전혀 다른 현대도시의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고 이야기하며 유적과 문화경관의 보존이 가능

모든 곳에 두루 계산다. 해설 원통보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건물이다. 건물이나 사람의 격이 높을 경우 원통전이라 하고 격이 낮을 경우 관음전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직장상사가 이유없이 미워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어느날부터 갑자기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연도 없는데 사사건건 질책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필준·서울 동작구 상도동)

불자라면 모름지기 내게 다가오는 경계를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아차! 또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직장상사의 꾸중이 심하다니 좀 어찌하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나를 마음껏 공부시키려고 경계를 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꾸로 그 상사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 한번 돌리던 고(告)는 고가 아닙니다. 번뇌도 번뇌가 아니구요. 귀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상사의 마음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은 통신이 되게 되어 있으니깐요. 그리고 더 한발 나아가서 그와 내가 틀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그와 내가 틀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감파 인드니 내 마음을 그의 마음에 포개든지 하면 틀이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날보고 뭐라하든 그건 내 살림이 됩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없지요.

이왕 탓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세상에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내가 있으니깐 경계가 다가오는 것이지 않다면 미워하고 싫고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경계는 다 내 탓인 것입니다. 내 탓으로 알아 참거나 나를 공부시키려고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니 고맙지,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생활중에서 부처님 말씀따라 배운다는 생각 잊지 마세요.

'돌장승' 하두 30년 계획 세웠는데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최근엔 한가지 작심을 했습니다. '돌 장승이 얘기하는 법을 알아야 불법을 안다'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한 30년 해를 작정했습니다. 지도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택·서울 용인구 동부이촌동)

돌장승만이 얘기를 남게 아니라 고목도 얘기를 남고 일체만물이 다 얘기를 남긴다.

그러나 그걸 계획을 세워 공부하신다면 그럴려면 선생께서 먼저 얘기를 남아 보세요. 돌장승이 얘기를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열

개도 남고 백개도 남고, 그래서 그냥 하나도 되었다가 하나가 없기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얘기하는 도리를 터득하려면 얘기를 남아 보아야지요. 못말을 알려면 못을 마셔보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참고요 한 말씀 해드리지요. 돌장승이 얘기 남는 것도 너만이 알고 있어! 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그렇게 둘 쪼듯이, 매사에 그렇게 해 보세요. 계획세우지 말고요.

일이 뜻과 정반대로 벌어질 때는

저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 뜻하는 것과는 달리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에 자주 부딪힙니다. 그럴때 이것 또한 인연법이니 하고 그냥 따라가야 할까요? 저항해야 할까요?

(조인욱·대전시 동구 용운동)

가르침을 믿으려면 철석같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맺들의 아래 위 쪽이 딱

지상삼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행은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념에 관해 의심이 나타나 궁극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삼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흥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정리·개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법주사

補陀山 上 琉璃界
(보타산상유리계)
正法明王 觀自在
(정법명왕관자재)
影入三途 利有情
(영입삼도이유정)

원통보전

圓珠 碾白 衣相
(패주차거백의상)
無量 光中 化佛 多
(무량광중화불다)
仰瞻 皆是 阿陀 彌
(양瞻皆是阿陀彌)
應身 舍衛 黃金 相
(응신舍衛黃金相)
寶 寶 寶 寶 寶 寶
(보보보보보보보보)
(보령도선벽옥타)

관세음보살 지애한 모습 그려

모든 곳에 두루 계산다. 해설 원통보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건물이다. 건물이나 사람의 격이 높을 경우 원통전이라 하고 격이 낮을 경우 관음전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제916호도 팔삼전과 함께 신라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련의 내용은 주불인 관세음보살님의 수행과 덕화를 찬탄하는 것이다. 첫구의 보타산은 관세음보살의 도량이다. 관음보살이 수행하고 많은 행화를 보인 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도량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굽어 보시고 주욕계까지 넘나들며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내용의 이 찬탄문은 관음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짐작케 한다. 그러면서도 관음보살의 화려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상징해 하는 세밀한 묘사가 매우 마음을 끄는 것이다.

(인동 경인중 교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 양성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구분	제6기 포교사 과정	제7기 교리반
교육기간	1년(1996년 3월 - 97년 2월)	6개월(1996년 3월 - 8월)
교육일시	매주 목·금 오후 6시 40분 - 9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원서접수	1996년 1월 18일 ~ 2월 30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등록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수료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로 분류함	수료자는 회당에 따라 포교사 과정 입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사무국 ☎ 051-818-8659 / FAX 807-7351(으로) 문의바랍니다.

제7기 교리반 과정

불교학 개론, 불교문화사, 경전개설, 불교미술, 참선실수, 습의 및 특강을 개설하여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법사, 본 대학 강사가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 390-34 8/2
성원 서민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 (부산진구청 뒤)
☎ (051) 818-8659 / FAX (051) 807-7351

海東佛敎大學
- 통신 수강생 모집 -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 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教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든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국에 하신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스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7기 佛敎儀式(범음,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종, 요령,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속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업반: 요량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3개월(야간 과정)
■ **구비서류:**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6년 1월 8일 ~ 2월 15일
■ **개강일시:** 1996년 2월 15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위동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신빌딩 앞 경향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應